■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발효까지는?

'가시밭 길' 2년 예상

국내 정치권 반대 여론도 거세

내년 총선 후 비준 절차 밟을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때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이 공개되는 시점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5월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통상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이어 협정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을 감안해 양국이 공개시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역시 국회 한미FTA 특위나 통외통위 등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본서명은 미국 TPA에 의해 최종 시한이 6월 29일이 되며,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낼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비준은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더라도 실제 비준 및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 정부가 연말 대선이나 내년 총선전에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 국내 정치권의 반대 여론도 거센 상태다. 따라서 내년 총선후 본격적인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민주당의 의회 다수석 차지 이후 FTA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FTA 발효에 앞서 상충되는 법률 개정작업도 완료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도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양국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협정 체결이후 비준 동의안 제출까지 기한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도 FTA 체결뒤 거의 1년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한미FTA의 비준 및 발효는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전국 붐 조성을 위해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2012기네스 도전 퍼즐대회'가 1일 서울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참가한 2천12명이 2012년 여수박람회를 상징하며 쌀로 만든 세계 최대(가로45.5m×세로36.4m) 의 모자이크 퍼즐을 조립하자 축포가 터지고 있다. /서울=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숨 돌릴 틈 없는 한국

EU·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도 협상 시작해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우리 협상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캐나다·멕시코·인도·걸프협력회의(GCC) 등 각국과 FTA 협상을 잇따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FTA 체결 성적 미흡**=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FTA의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가까스로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켰다. 다만 2003년말 개시된 일본과의 FTA 협상은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 기피로 난항을 겪다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채 2004년말 6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작년 3월에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9월에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각각 발효시켰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는 2005년 말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했으며 상품 분야는 작년 8월 9개국과의 서명을 마치고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중이다.

◇**'경제거인' EU·중국이 관건**=미국에 이어 남아있는 협상중 최대 관건은 역시 '글로벌' 거대 경제지역인 EU, 중국과의 협상이다. 정부는 2003년 8월 'FTA추진 로드맵'으로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인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중국의 경우 작년 11월 양국 통상장관의 합의에 따라 지난 22~23일 베이징에서 양측이 1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인도·GCC 등 줄줄이 대기**=이밖에도 캐나다·멕시코·인도 등과도 사전 절차가 진행중이다. 캐나다와는 2005년초 사전협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FTA협상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지난 1월 9차 협상이 열린 상태다. 상품 관세 개방(양허)에 대한 협상의 경우, 공산물·농산물·수산물·임산물 등 4개 분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안 일부 수정"

미국 하원

미국 의회가 한국과 미국 정부간 합의안의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미 민주당의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조만간 한국과의 FTA 타결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의회의 검토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행정부에 상기시킨다"며 이 기간은 법률상 "의회가 합의안을 이해하고 특별한 우려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랑겔 위원장과 레빈 소위원장은 이어 의회의 검토기간은 FTA의 완성뿐 아니라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에 대한 필요한 변경을 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의회에 통보된 파나마와의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도 "최종 합의가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현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의회가 합의안의 수정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온국민 '유치 기원' 한마음

2012 엑스포 여수로

쌀로 만든 세계 최대 모자이크 퍼즐 완성

사이클 투어·관광열차 운행 등 행사 다채

BIE실사 D-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네스 도전 퍼즐대회'가 열렸다. 또 여수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전거로 전국을 순회하는 '트윈전국사이클투어'가 3일부터 시작되며, '엑스포 관광열차'도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운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여수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전국적인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을 위해 전남도와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여수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2기네스 도전 퍼즐대회와 유치기원콘서트'가 서울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재철 유치위원장, 이인기 국회세계박람회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1만5천여 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퍼즐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참가자 2천12명이 쌀로 만든 것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가로 45.5m, 세로 36.4m크기의 모자이크 퍼즐을 완성했다.

가로 91㎝, 세로 91㎝ 짜리 정사각형 조각으로 이뤄진 이 퍼즐에는 여수박람회 심벌마크와 로고가 색색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 장관을 연출했다.

이번 대회는 기네스 세계기록 도전사로, 조만간 영국에 있는 세계기네스 본부에 '세계 최고기록'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또 오는 3일 올림픽공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홍보를 위한 '전국 트윈사이클 투어 발대식'을 갖는다.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0개 주요 도시를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순회하는 이번 사이클 투어는 박람회유치 열기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300명이 참가하는 '2012여수박람회 관광열차 운행'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무박 2일로 여행하며,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광주시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1일, BIE(국제박람회사무국)의 여수 현지 실사(9~13일)를 앞두고 광주공항과 광주역, 광천버스터미널, 광주지하철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전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마라톤대회를 열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